

【별지】

아이 지킴이 시트의 활용에 대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아이의 섭세한 변화에 눈치채여 “이지메의
싹” 단계에서 조기 대처를 합시다.

아이가 학교, 가정, 지역에서 보이는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하여 아이와 연관된 모든 어른들이 “좀 이상하네” “평소와 다르네”라고
눈치 챌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아이의 고민과 SOS에 즉시 대처할 수 있습
니다.이 “아이 지킴이 시트”를 활용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시다.

• • • 활용 방법 • • •

자녀의 모습이 “평소와 다른” “원인을 분명하지 않는”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반복되고 있다” 등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본 시트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 체크 항목은 아이의 변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이외의 변화에 신경
쓰이는 내용은 자유 기술란에 기입하세요.

◆ 기제된 「아이 지킴이 시트」를 담임, 클럽 고문, 관리직, 스쿨 카운슬러 등
누구한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사정에 따라 지참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에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 물론 이 시트가 없어도 학교는 이지메 등 상담을 받습니다.

◆ 제출한 “아이 지킴이 시트”를 근거로 학교의 대처도 시작합니다. 학교는 “아이
지킴이 시트”를 접수 받으면 보호자와 연락을 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에
향후의 대처에 대해 소견을 기입합니다. 그 후 보호자와 연합하여 사태 개선을
도모합니다.

◆ 학교는 원본을 보호자에게 반송함과 동시에 사본을 보관합니다.

아동·학생 이름 : 년 반 ()
보호자 이름 : ()

(학교 기입란)
학교 접수일 : 년 월 일
접수 담당자 ()
보호자에의 반송일 : 년 월

아이 지킴이 시트 “신경 쓰이는 자녀의 변화는 하나의 짜인”

-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화풀이하게 된다.)
- 일부러 떠들어 댄다
(혼자 이상한 텐션으로 떠들어댄다. 일시 그런 모습이 이어지더니 그 후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는다.)
- 학교 예기가 갑자기 줄어든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 없다."시시하다", "재미 없다"란 표현만 한다.)
- 등교시간에 컨디션 불량을 호소한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 몸에 원인불명한 상처나 멍이 있다.
(이유를 물어도 확실한 이유를 대지 않는다.)
- 옷이 부자연스럽게 더럽혀져 있다
(옷에 신발 자국이나 이유가 확실하지 않는 매직펜이나 물감 등의 얼룩이 있다)
- 소지품의 교체가 빨라진다
(자주 소지품이 없어 지거나 망가진다.)
- 돈 씀씀이가 해퍼졌다
(집에서 금품을 몰래 가져가거나 필요 이상으로 용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 사귀는 친구가 변했다
(옛 친구와의 교류가 극단적으로 적어졌다.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지 잘 모를 친구가 늘었다.)

그외, 신경 쓰이는 것이 있으면 기입하십시오.

향후의 대처에 대해 (학교 기입란)